

일. 세상의 사고방식, 아니면 하늘의 사고방식?

❖ 우리의 초점 (골 3:1-4)

- 바울은 우리가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으니(골 2:12)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신 곳, 곧 하나님의 보좌(골 3:1)로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말합니다.
- 실질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분을 따라갈 것입니다(골 3:4). 그때까지 우리는 눈을 하늘에 고정시키고 목표를 하늘에 두어야 합니다(골 3:2).
- 우리는 "죽었고", 우리의 생명은 "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"(골 3:3). 여기서 말하는 "생명"은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받은 새 생명입니다.
- 이 생명을 유지하려면 날마다 양분을 공급받아야 합니다(고후 4:16). 우리는 매일 "위엿 것"을 구하고 "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" 합니다(히 12:2).

❖ 세상의 욕망에 대해 죽음 (골 3:5-6)

-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고 하늘의 사물들을 생각하며 살아가므로, 우리가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게 막는 이 땅의 것들에 대해 죽어야 합니다.
- 바울은 오해의 소지를 남기지 않기 위해 이 세상에 속한 다섯 가지 근본적인 사고방식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합니다. "음행, 더러운 짓, 정욕, 악한 욕망, 그리고 지나친 욕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"(골 3:5).
- 바울이 살던 때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본성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. 우리는 지금도 십계명에 적힌 명령뿐 아니라 그 근본 정신을 모두 여기는 똑같은 정욕에 둘러싸여 있습니다.
- 그렇다면 우리는 왜 세상에 속한 생각과 행동들에 대해 "죽어야" 할까요? 세상에 속한 것들은 "하나님의 진노"를 불러일으키고, 하늘의 본성과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(골 3:6).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죽이기 전에 우리가 세상의 것들에 대해 죽어야 합니다!

❖ 하늘의 옷으로 갈아입음 (골 3:7-11)

- 다섯 가지 세상의 사고방식들을 속담처럼 나열한 바울은 계속해서 버려야 할 다섯 가지 세상에 속한 행동들을 말합니다. "화냄, 분노, 악의, 비방,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"(골 3:8) 그리고,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이자 가장 나쁜 "서로 거짓말하"는 것입니다(골 3:9).
- 바울은 우리가 이미 "옛 자아와 그 행실을 벗어 버렸으므로"(골 3:9)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없애 주시도록 기도했을 때 우리의 "더러운 옷"을 벗어 버린 것으로 여깁니다(속 3:4).
- 오래된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"아름다운 옷"을 입어야 합니다. 이 새 옷을 입음으로써 우리는 끊임없이 새롭게 되고, 날마다 거룩함 안에서 성장합니다(골 3:10).
-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거듭나게 될 때, 서로를 분리하는 장벽들은 사라집니다(골 3:11).

이. 그리스도안에서 사는 새 삶의 특징들:

❖ 온전히 하나가 됨 (골 3:12-14)

- 우리는 "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고, 거룩하고 사랑받는 사람들"입니다(골 3:12). 베드로는 이 정체성이 큰 축복이 되는 동시에 큰 책임이 따른다고 말합니다(벧전 2:9).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(골 3:12-13)?
 - (1) 불쌍히 여기는 마음
 - (2) 친절
 - (3) 겸손
 - (4) 온유함
 - (5) 오래 참음 (인내)
 - (6) 서로 참으며
 - (7) 서로 용서함
- 이 모든 것은 완전한 띠, 즉 사랑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(골 3:14). 그리고 위의 덕목들은 우리가 누리는 혜택과 책임입니다:
 - (1) 축복: 이런 행동들은 다른 사람들과 우리에게 축복입니다.
 - (2) 책임: 이런 행동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, 다른 사람들도 보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싶게 합니다

❖ 하늘의 음식 (골 3:15-17)

- 골 3:15-17 은 하늘나라의 본성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알려줍니다. 그리고 혼자서는 하늘의 본성을 키울 수 없고,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교제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:
 - (1)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를 다스리심
 - (2) 만장 일치로 한 몸이 됨
 - (3) 감사하는 마음
 - (4) 성경말씀을 집중적으로 연구함
 - (5) 배운 것들을 서로 나눔
 - (6) 시편과 찬송, 그리고 영적인 노래를 부름
 - (7)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함
- "'노래는 우리에게 낙심이 닥쳐올 때마다 사용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.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임재의 햇살을 받을 때, 우리는 건강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'" (엘렌 화잇, 치료 봉사, 254).